

일본 인터넷 민족주의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함의*

이원경**

요약

일본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극단적인 반일·반중 감정을 표출해오던 네티우익이 10여 년 전 등장했으나 현실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러나 최근 네티우익의 활동 공간 및 관련 주제가 확장되면서 한일 및 중일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관련한 일본 네티우익들의 담론 및 행태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실제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간 네티우익의 활동이 다양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이 한국의 어떤 점을 비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일간의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한일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에도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티우익의 형성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갈등과 일본 사회 내부적 문제라는 근대적인 요인의 영향이 컸지만, 그들의 행동방식과 성장의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세계화라는 탈근대적 배경이 존재한다. 한국과 관련해서 네티우익은 역사와 영토문제를 비롯해 한류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역사 및 영토문제보다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정책과 인터넷 공간의 보수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인터넷 민족주의, 네티우익, 사이버 테러리즘, 혐한류, 한일관계

*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서울대 외교학과 김상배 교수님 및 외교학과 대학원생들,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정보통신연구과 박사과정, circlek2@gmail.com

I. 들어가며

지난 2012년, 한국과 일본 및 일본과 중국 간에는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어 양국 관계가 경색되고 경제·문화 분야에까지 파장이 확대된 바 있다. 이는 영토와 국경이라는 가장 근대적인 사안을 쟁점으로 시작된 갈등이 인터넷이라는 탈근대적 공간에서 확산이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21세기 한일 및 중일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양국간 혹은 3국간의 이러한 쟁점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보다는 극단적인 국수주의적 주장을 반복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국에 대한 폄훼를 일삼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편향된 의견을 가진 세력이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자극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기 쉽다. 나아가 인터넷상의 극단적인 담론이 일부 유동층의 시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한일·한중·중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활발해지는 한중일의 인터넷 민족주의¹⁾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내 인터넷에서의 민족주의적 움직임 중에서, 일본의 넷우익(ネット右翼)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해서 2005년 명명된(産経新聞 05/05/08) 이후 10여년의 진화를 거친 집단으로, 일본 내에서는 물론, 한국과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2~3년 사이 반한·반중 공세를 동시에 펼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성장했고, 온라인에서만 머무는 가상의 집단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단체로 거듭났으며,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이들의 위험성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1) 사이버 민족주의, 사이버 내셔널리즘, 온라인 민족주의 등 유사한 현상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명칭에 '넷'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민족주의'로 통일해 사용하였다.

일본 네티우익의 활동은 한일 및 중일관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은 바,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과거 10여 년간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과 관련한 네티우익들의 담론 및 행태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기존 논의 중 대부분은, 네티우익은 허황된 담론을 생산하는 ‘이상한’ 존재이며 일본 사회 내부의 문제²⁾가 이들을 성장시켰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네티우익의 주장이 실제로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제까지 네티우익의 활동에 일관성이 부족했고 정치세력화되지 못함으로써 한일관계에 특별히 영향력을 미친 유의미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 국내의 극단주의적 발언에 대해, 한국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그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네티우익을 과도하게 타자화해 지난 10여년간의 전개를 이상현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실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네티우익의 활동이 다양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이 한국의 어떤 점을 공격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일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한국 공공외교정책에도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 관련 연구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인터넷 민족주의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동아시아 및 일본의 인터넷 민족주의의 성격에 대해 정리했다. 이어서 3장에서는 일본 웹사이트 니찬네루(2ちゃんねる, 이하 2ch)³⁾, 야후 뉴스 코멘트, 우익단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네티우익의 활동무대로 꼽히는 사이트의 게시글들을 바

2)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선동, 버블경제 붕괴로 인한 장기불황, 세대갈등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3) <http://www.2ch.net>

탕으로 네티우익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그들의 관심사가 일본 사회 내부 문제에서 국제적 문제로 확장되었으며, 활동범위도 일본어 기반의 웹사이트에서 타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거쳐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4장에서는, 이들의 담론분석을 기반으로 △영토문제 △한국의 문화콘텐츠 정책 △정보통신기술(ICT) △왜곡된 민족주의의 확산 등 한국과 관련된 분야 중 네티우익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네티우익의 활동이 각 분야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한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II. 기존 논의 분석

한국과 일본 모두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라는 구미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단어를 적절히 번역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민족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문맥에 따라 국가주의 혹은 국민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민족주의를 동일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민족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려는 행동(Eriksen 2006)이라고 정의하고, 인터넷상에서의 민족주의적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넷 민족주의의 개념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류석진 외(2008)가 시도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이 민족에게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믿는 신조’로서의 근대적 민족주의가 온라인 공간에서 가시화되면서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담론이 증폭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담론의 재생산이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사건들이 모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인터넷 민족주의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즉, 지구화와 ICT의 발달이 영토 등 물리적 개념을 희석시켜 국민국가

(nation state) 및 민족주의 개념이 약화되었다는 주장⁴⁾과 함께, 오히려 불균등과 이질성을 부각시켜 민족주의를 확대·존속시킨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카스텔(Castells 2010)은 세계화와 더불어 민족주의가 재생되고 있으며 특히 저항의 수단으로 ICT를 이용하거나 문화민족주의적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는 지구화가 민족주의를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지속·재생산한다는 논의(Calhoun 2007)를 기반으로 특히 ICT가 동아시아 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키는 배경이 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이라는 경계가 유지·재생산·변형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한중일은 각각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인터넷이라는 초국가적 공간이 탄생했을지라도 서로 배타적인 언어를 이용해 일방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타국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발생하거나 의도적인 자료조작이 이루어진 뒤 왜곡된 자료가 확산되는 일도 드물지 않아 ICT의 역작용이 뚜렷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일본 내에서 인터넷 민족주의, 특히 넷우익에 대한 담론 및 언론 보도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관련연구는 도서와 논문을 포함해 10여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대부분은 일본 내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넷우익 등장의 원인을 찾고 있다. 타카하라(高原 2006)는 일본, 나아가 한중일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된 배경에는 과거 우익의 등장과 달리 사회경제적 불안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불안형 내셔널리즘'⁵⁾이라 명명했다. 과거 단카이(團塊)세대⁶⁾ 우익들의 내셔널

4) 이와부치(岩淵 2004)는 일본과 한국의 대중문화가 국경을 넘어 혼종화되었고, 이를 통해 민족주의라는 과거의 잔재를 넘어 새로운 지역적 상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5) 실증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고용 유동화가 젊은 층의 불안감을 형성했고 청년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킨다는 타카하라의 논의는, 한국의 '88만원 세대' 논의(우석훈·박권일 2007)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으며 4장에서 후술할 한국 일일베스트 게시판 이용자의 성향을 설명하는데도 적용해볼 수 있다.

6) 2차대전 직후 일본의 베이비붐 시대이던 1947~49년 사이 태어나 1970~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세대로 약 8백만명에 달하며 일본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단카이는 '덩

리즘이 고도성장기 일본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형성된데 비해, 불안형 내셔널리즘은 불황과 사회유동화로 불안을 느끼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의 하위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떠맡은 저임금 노동을 일본에서는 ‘프리터’⁷⁾로 대변되는 젊은 층이 담당하게 되면서 일본 내 세대 간 대립이 발생할 조짐이 보였으나, 대신 불안형 내셔널리즘이 등장하여 ‘가상의 적’을 만듦으로써 일본의 국내적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콘도 외(近藤 외 2007)나 스즈키(鈴木 2008)는 버블경제의 혜택을 입은 세대들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생긴 심리적 여유를 기반으로 좌파적 성향을 띄고 있는 것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네티우는 인터넷 상에서 내셔널리즘을 하위문화 형태로 발현시켜 재미를 찾고 나아가 취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들에게는 ‘네티우익’도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하나의 놀이일 뿐, 일관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최근에 진행된 야스다(安田 2012)의 연구는 네티우익의 위험성에 좀더 주목하고 있다. 1년 반 동안 네티우익에서 파생된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會, 이하 재특회)’을 추적해 본 결과, 20대 젊은 네티우익들은 한국과 북한은 완전한 적국이고 재일 한국인은 침략자라고 주장하면서 지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

어리(nodule)’라는 의미로,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가 1976년 출간한 『단카이 세대』에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생산형 조직사회에 순응하면서 동세대끼리 잘 융합한다는 맥락에서 처음 사용됐고 이후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단카이 세대는 자신들이 일본의 경제신화 주역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 위키피디아 참조.

<http://ja.wikipedia.org/wiki/%E5%9B%A3%E5%A1%8A%E3%81%AE%E4%B8%96%E4%B%A3> (검색일: 2013.06.12)

7) 프리터는 프리랜스(freelance)와 아르바이트(arbeiter)의 일본식 합성어로 정규직 이외의 노동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본 위키피디아 참조.

<http://ja.wikipedia.org/wiki/%E3%83%95%E3%83%AA%E3%83%BC%E3%82%BF%E3%83%BC> (검색일: 2013.06.12)

스다는 기존 일본의 네티익의 담론 및 연구결과와 달리 이들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비교해, 한국의 인터넷 민족주의 관련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뤄진 국내 인터넷 문화의 특징과 민족주의적 담론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정민우 2010; 홍주현 외 2011; 서이종 외 2013). 반면, 과거 한일관계와 민족주의적 갈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한일간 인터넷 공간에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국내 학자의 연구는 네티익의 등장과정과 구체적인 혐한·혐중 행태를 조사한 김효진(2011)의 연구 등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중국 인터넷 민족주의의 확산 과정을 연구한 우(Wu 2007)가 인터넷 민족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문제제기의 주체가 소수의 엘리트에서 일반 대중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에 주목했다. 또한 우는 인터넷상에서 단순히 정치적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나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다고 분석했다. 박기철(2011) 역시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정책이 강성외교로 전환하는데 촉매제(trigger)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네티익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국내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개시하여 현실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티익이 가까운 미래에 일본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행사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중심으로 네티익의 전개를 바라보았다.

Ⅲ. 일본 네티우익의 형성 및 전개

1. 네티우익의 정의 및 등장배경

네티우익(ネット右翼)은 ‘인터넷’과 ‘우익’의 합성어로,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를 신봉하는 일본의 인터넷 이용자, 특히 인터넷상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용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다.⁸⁾ 이 단어는 기존 우익단체에 소속되거나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으나 인터넷상에서만 우익적인 언동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네티우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애국자일 뿐이라며 네티우익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네티우익이라는 단어에는 인터넷에서 아무리 민족주의적 발언을 펼쳐도 영향력은 인터넷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겨서 환영받지 못한 것이다.⁹⁾ 그러나 일본 내에서 네티우익이라는 단어가 약 10년간 사용되면서 스스로 네티우익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개념적 정의도 정착되어가고 있다.

일본 네티우익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흔히 2ch와 함께 니코니코 동화(動画)¹⁰⁾, 야후 재팬 뉴스게시판¹¹⁾, 일본문화채널 사쿠라¹²⁾, 트위터

8) 네티우익의 일본어 발음은 ‘네토우요쿠’로 일본어로 발음이 동일한 한자어 ‘熱湯浴(열탕욕)’로 치환해서 사용하거나 약칭인 네토우요(ネトウヨ)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자칭 넬 국사(ネト國士)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국사’란 19세기 일본 국내외에서 특정한 정견을 갖고 활동하던 사상가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9) 심지어 ‘네티우익’들은 이 호칭이 제일 한국 및 중국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만든 단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자신들을 네티우익이라고 부르는 네티즌을 ‘네티우익 연호주(ネトウヨ連呼主)’ 혹은 ‘렌코리안(連呼)アン: 연호+코리안)’이라 부르면서 공격하기도 한다.

10) <http://www.nicovideo.jp> 일본 최대 규모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로 ‘싱글벙글 영상’이란 뜻이다.

11) <http://headlines.yahoo.co.jp/cm/list>

12) <http://www.ch-sakura.jp> 보수적인 성향의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하는 일본 TV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회사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채널 사쿠라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개요를 전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센카쿠제도나 난징대학살 등 중국 관련 이슈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용 게시판(BBS)에는 헌법개정이나 자위대, 한일·중일 관련 주제의 글들이 주로 올라오고 있다.

터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2ch와 니코니코 동화 등은 일본에서 가장 이용이 활발한 인터넷 사이트일 뿐 네티우익만의 공간은 아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ch 등을 혐한사이트로 지목하고 있으나(경향신문 10/03/02; 주간경향 12/05/10; 주간조선 13/01/21) 이 사이트는 한국의 디시인사이드¹³⁾와 마찬가지로 지역 축제 정보부터 기계공학이나 외교정책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¹⁴⁾의 게시판이다. 2ch는 40여개의 카테고리 아래 총 7백여개의 게시판으로 구성된 다양한 주제의 담론장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네티우익들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게시판은 △뉴스속보+ △동아시아뉴스+ △뉴스극동 △전쟁·분쟁 △한글 △중국 등 10개 이하로 전체 게시판 규모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각 게시판에서 사용자들은 세분화된 주제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데, 네티우익은 활동본거지로 삼은 게시판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방¹⁵⁾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소위 ‘트롤(trolling)¹⁶⁾’을 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야후 뉴스 댓글란 등에서 이들은 극우적인 의견을 선동적인 어투로 작성하여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http://www.dcsinside.com>

14) 시장조사기관 닐슨 넷레이팅스의 조사에 따르면 2ch는 2009년 기준 1천1백70만명의 이용자가 활동하는 세계 최대 BBS였으나, 2009년 이후 이용자가 정체 혹은 감소해 2013년 6월 알렉사닷컴의 트래픽 순위 조사결과 일본내 순위 27위, 세계 순위 430위에 머물렀다.

15) 네티우익은 제일 한국인과 조선인을 ‘조센징, 총, 총코, 총공’ 등으로 일컫는데 이는 일본에서 에도시대 공익역직 등의 용무를 장표에 기입할 때 제일 위에 중요한 사람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다’는 의미로 “>(총)”을 기록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모자란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변화했다. 이후 오용으로 제일 한국·조선인 차별에 대한 다른 표현과 결합되어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송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은 ‘시나인’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2012년 공식석상에서 이 용어를 사용해 영토문제로 경직됐던 중일관계가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16) 인터넷상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선동적인 내용, 또는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을 올려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어로는 ‘아라시(荒らし)’라고도 불리며,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목적에 걸맞지 않는 투고를 계속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을 무시하거나 일시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결국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등 악의적으로 공동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통칭하고 있다.

복수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을 만들어 익명으로 활동하는 네티우익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우익 성향의 담론이 다수 발견된다고 해도 네티우익의 수가 많은 것인지, 소수의 네티우익이 작성한 글이 많은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ch 등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네티우익의 비율을 조사한 츠지(辻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네티우익은 1~3%¹⁷⁾에 불과하며 20~30대¹⁸⁾ 남성¹⁹⁾ 사용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비율을 일본 인구 전체에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약 1백 20만명이 네티우익과 같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야마모토 외(山本 2013)는 네티우익을 반한·반중 관련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능동형과 네티우익의 게시글에 찬성만을 표시하는 수동형으로 나누고, 혐한·혐중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인터넷 외에도 서명·투서·집회출석 등의 활동에 적극적인 네티우익은 11만명 정도라고 밝혔다.²⁰⁾

네티우익과 일본 국내정치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네티우익의 게시글을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자민당은 애국정당이라며 지지하고, 구 일본사회당(현 사회민주당)을 계승한 민주당을 좌익 정당이자 한국과 중국의 편에 서는 반일정당으로 여겨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민당 대표인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는데²¹⁾

17) 유효응답 998건 중 광의의 네티우익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전체의 3.1%였다.

18) 네티우익의 세대별 분포는 20대 전반 16%, 20대 후반 29%, 30대 전반 13%, 30대 후반 23%, 40대 전반 19%로 나타났다.

19) 남성 84%, 여성 16%

20) 이는 현재 약 12만명이 우익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추산한 일본 경찰의 발표와 비교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우익단체(정치자금규제법에 따라 정치자금 신고를 한 단체 중 우익이라고 간주되는 단체)는 1천7백여개가 있지만 실체는 확실하지 않은데, 전통적인 계보를 잇는 우익은 20~30여개, 거리선전을 넘어 육탄전을 불사하는 행동우익의 성향을 가진 단체가 약 50개(2만 2천명), 가두선전을 하는 우익은 약 9백개(1만명), 기업 등을 협박하여 이권을 챙기는 가짜 우익은 약 3백 50개(6천명)로(박훈 외 2008) 우익 내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기존 우익중 일부는 네티우익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 야스다 코이치는 2012년 중의원 선거 전날인 12월 15일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열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의 가두연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베 힘내라!”를 외치며 열정적으로 일장기

아베 총리는 직접적으로 넷우익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페이스북²²⁾에서 넷우익의 행동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돌아온 사건²³⁾을 “인터넷의 승리”라고 일컫는 등 넷우익을 능숙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정치칼럼니스트 기타하라 미노리는 총리 취임 다음 날인 2012년 12월 27일 아베 내각을 ‘네토우요(ネトウヨ) 내각’이라고 평가해(中日新聞 12/12/27, 3) 논란이 되기도 했다.

넷우익은 일본 보수우익계 언론으로부터 주요 논지 및 사상적 기반을 제공받고 있다(近藤 2007). 특히, 「제군(諸君)」, 「정론(正論)」, 「SAPIO」, 「Will」, 「역사통(歴史通)」 등의 주·월간지는 반중·친대만·협북한 및 협한 등을 기본 정서로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며, 넷우익은 이와 같은 편파적인 언론이 제시한 왜곡된 정보와 논리를 ‘증거’라 내세우며 인터넷에 한국이나 일본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온 것이다. 보수 우익계 언론이 주장하는 △일본 총리 및 정부 고위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평화 헌법(헌법 9조) 개정 △국방군 창설과 핵무기 보유 등의 기조는 넷우익의 주장으로 재생산되어 인터넷에서 전파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넷우익에 대해 일본의 일반 시민 및 인터넷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넷우익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2ch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조차 넷우익을 ‘사회에 불만을 품고 집안에만 숨어있는 저학력자’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²⁴⁾ 2011년에는

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이는 매우 예외적인 일로 아키하바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넷우익들이 결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週刊朝日 13/02/01, 21).

22) <http://www.facebook.com/abeshinzo>

23) 2012년 9월 후지 TV 정보 프로그램 캐스터 오구라 토모아키가 아베가 과거 병으로 총리직에서 사임한 것에 대해 야유를 보내자, 아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인 비방”, “TV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동 방송국에는 아베의 글을 읽은 넷우익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항의 전화가 폭주했으며 해당 캐스터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했다(週刊朝日 13/02/01).

24) 넷우익 관련 게시물이 평일 업무시간에도 다수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게임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하면 정책결정권자를 좌익이라고 몰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통해 넷우익이 ‘오타쿠’, ‘히키코모리’라는 설이 확산되었다.

일본 여성들에게 ‘가장 사귀고 싶지 않은 남성’으로 넷우익이 뽑히기도 했는데²⁵⁾ 이 배경에는 인터넷상에서 매너가 없고 공격적이란 것 외에도, 넷우익에 대해 저학력·저소득층, 인터넷 외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극우적 발언을 일삼는 패배자 등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 있다.

천황제를 비롯한 일본의 전통적 가치를 강력히 지지해온 기존 우익²⁶⁾들조차 넷우익에 대해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 일본 우익은 메이지시대 이후부터 이어지는 사상적 계보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넷우익은 인터넷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과거 일본의 국가주의 및 군사·경제적 우위에 대한 향수를 단편적으로 표출하는 연속성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민족파를 자처하는 ‘전통 우익’이나 가두 선전차를 이용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행동 우익’은, 뚜렷한 조직없이 이슈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넷우익을 ‘거품 우익’이라고 조롱하고 있다(宮崎 2007).

특히, 넷우익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왔던 극우 격주간지 SAPIO가 넷우익을 비판한 것은(SAPIO 12/08/22) 넷우익에 대한 우익집단내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익단체 일수회(一水會)²⁷⁾ 전 대표였던 스즈키 쿠니오 고문은 넷우익이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익명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일임으로, 집단적으로 외국인을 괴롭히는 행동은 그만두고 인터넷이라는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생각하고 발언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넷우익을 비판한 우익 논객들도 「주권회복을 위한 모임(主權回復を目指す會)」이나 재특회 등 넷우익에서 파생되어 행동성을 갖춘 단체에 대

25) 여성 정보제공 블로그 youpouch (<http://youpouch.com>)의 2011년 6월 17일 조사 결과.

26) 전통적인 우익 특히 친미반공 계열 중에서는 ‘대일본애국당’ 등 친한성향의 단체도 존재한다. 전체 우익의 비율로 볼 때 한국에 대해서는 1980년대 말까지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동질감에서 지지하는 단체가 많았으나, 최근 독도와 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한국에 비판적인 우익이 증가하고 있다.

27) 신우익으로 분류되는 일수회는 친미·반공우익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단체로, 일본의 완전한 독립을 얻기 위해 반미의 입장을 취할 것과 일본의 대미자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해 비난하며 일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단체들이 재일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일관계를 경색시킬 위험성이 기존 네티우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우익과 네티우익간의 의견대립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2. 활동 공간의 확장

2ch내 특정 게시판 등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하던 네티우익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점차 활동 공간을 확장하고 있으며, 의견을 표출하던 주제도 일본 국내문제에서 국제문제로 다양해지고 있다.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네티우익이라 칭하면서 블로그에 반한·반중 담론을 전파하는 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후쿠시마현 출신²⁸⁾의 극우언론인 세토 히로유키(瀬戸弘幸)로 지난 2005년 6월부터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²⁹⁾’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민주당과 공산당 등을 비판하는 글을 개설 이후 거의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 각 글마다 반한 감정 등이 실린 댓글이 60~100여 개 달려, 이 공간이 네티우익의 새로운 집산지라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7년 7월에는 중국·한국·아사히신문·부자에 대한 반대를 내세운 잡지 「스레드」가 창간되어, 네티우익의 주장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보수계층에게 전파하려고 시도했으나(AERA 07/09/17) 같은해 9월 휴간되어 불발되고 말았다.

일본어 웹사이트에서 주로 활동하던 네티우익의 활동은 해외 사이트로도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2008년 12월과 2010년 3월에는 한국 디시인사이드와 사이버 공격을 주고받다가, 청와대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28)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민주당 간 나오토 정권의 대처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한 피해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 http://blog.livedoor.jp/the_radical_right (검색일: 2013.06.09).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이하 VANK) 홈페이지³⁰⁾까지 공격하는 등 한국 인터넷 민족주의와 정면충돌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온라인 청원란 「위 더 피플(We the People)」³¹⁾을 무대로 한일 인터넷 민족주의가 대립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위 더 피플은 게재된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2만5천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다. 2012년 3월 13일 게재된 “일본해(日本海)라는 표현을 바꾸어서는 안된다”라는 청원에 대해 네티우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에 대응한 버지니아 한인회의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바꾸자”³²⁾는 청원에 대해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도 서명을 조직적으로 지원해 대응했다. 이외에도 같은 해 5월 10일 게재된 “미국 뉴저지주 펠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시에 세워진 일본인 위안부 추모비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이나, 6월 21일 게재된 “미 하원 결의안 121호를 중단하라”³³⁾는 청원에 단시간 내에 3만여 명이 서명했는데, 이는 일본 네티우익 주도의 서명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2009년 이전까지 인터넷 이외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네티우익은 2011년 7월 일본 배우 타카오카 소스케(高岡蒼佑)의 반한류 트윗을 계

30) <http://diplomat.prkorea.com/main.jsp>

31) <http://petitions.whitehouse.gov> (검색일: 2013.05.30).

32) 2012년 3월 22일 작성되어 30일간 10만 2천 43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며 일본해에서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명의의 회신이 있었다. <http://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east-sea-false-history-our-textbooks> (검색일: 2013.06.15).

33) 2007년 미 하원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과와 시인을 요구하는 결의안 121조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http://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repeal-house-representatives-resolution-121-stop-aggravating-intl-harassment-korean-propaganda-lies> (검색일: 2013.06.15).

기로 전환점을 맞게 된다.³⁴⁾ 타카오카는 자신의 트위터³⁵⁾에 후지TV³⁶⁾가 한국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많이 방영하고 있어서 한국 TV 같이 느껴지며, 그래서 최근 후지 TV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이후 인터넷 상에는 그에 동조하면서 “후지TV가 한류를 밀어주고 있다”, “한국 측에 유리하게 편성·보도되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을 모욕하는 방송이다”라는 여론이 고조되었다. 이후, 후지TV의 한국 콘텐츠 집중 방영 및 소개에 불만을 품고 있던 네티우익 세력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위에 참가할 것을 독려했고, 8월 7일(약 6백명 참가)과 8월 21일(약 5천명 참가) 후지TV 본사 앞에서 반한류 시위가 개최된 것이다. 시위 현장은 니코니코 동화와 Ustream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도 생중계되었고 10만 명이상이 시청했다.

네티우익은 후지TV의 주요 광고 스폰서인 생활용품업체 가오(花王, KAO)를 친한 기업이라 낙인찍고 불매운동을 진행하거나, 한국 경원소주가 일본어 홈페이지에도 ‘동해’라고 표기했다며 일본내 판매를 담당하는 산토리시를 비난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시도도 이어갔다. 특히, 2005년 독도 수호천사로 위촉돼 스위스 등에서 독도사랑 캠페인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배우 김태희를 ‘반일’이라 낙인찍고, 그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로토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해, 로토제약이 안전문제를 이유로 CF발표회를 취

34) 2ch에서는 타카오카의 트위터 내용을 보도한 뉴스에 대해 역대 최대로 많은 답글(Thread)이 게재되었다. 한 가지 뉴스와 관련해 당시까지 가장 많은 답글이 달린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464개) 였으나 타카오카의 발언 관련 뉴스에는 2011년 8월 1일 기준 522개가 작성되어 기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일본 위키백과 참조, <http://ja.wikipedia.org/wiki/2011%E5%B9%B4%E3%81%AE%E3%83%95%E3%82%B8%E3%83%86%E3%83%AC%E3%83%93%E9%A8%92%E5%8B%95#E9.AB.98.E5.B2.A1.E8.92.BC.E7.94.AB.E3.81.AE.E3.83.84.E3.82.A4.E3.83.BC.E3.83.88> (검색일: 2013.06.09).

35) 당시 계정은 http://twitter.com/tkok_sosk_8228 였으나 이후 트위터를 탈퇴했다.

36) 일본 최대의 민영 방송국으로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 계열사이나 예능과 드라마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다수 방영하고 있다. 2011년 7월 편성표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의 방송시간이 후지TV는 월 약 38시간, TBS는 19시간, 도쿄TV는 12시간, NHK는 4시간, 니혼TV와 TV아사히는 0시간으로, 다른 지상파 TV와 비교해 후지TV의 한국 드라마 방송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朝日新聞 11/09/20).

〈표 1〉 넷우익의 주요 활동

일시	내용	활동무대 및 참가자
2009년 3월	자민당 아소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저서 『더무니없는 일본(とてつもない日本)』(2007)의 대량 구입을 조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ch
2009년 9~12월	정권교체 후 친한·친중 방침을 표명한 일본 민주당에 대해 '매국정당'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 게재	2ch
2011년 8월 7일 8월 21일	도쿄 오다이바 후지TV 본사 앞에서 방송 프로그램이 한류로 편중됐다고 항의	8월 7일(약 600명 참가) 8월 21일(약 5000명 참가)
2011년 8-11월	후지TV의 주요 광고 스폰서인 생활용품업체 KAO 및 홈페이지에 '동해'라고 표기한 경월소주의 일본 판매원인 산토리사에 대한 불매운동 진행	2ch
2012년 3월 21일	2005년 독도홍보모델로 활동한 배우 김태희에 대한 입국 반대 시위 및 김태희를 모델로 기용한 로토제약(Rohto) 불매운동	2ch, 로토제약 홈페이지
2012년 5월 10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란에 뉴저지 펠리세이즈 파크 시에 건립된 일본인 위안부 추모비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 게재	2ch 백악관 홈페이지 온라인 청원란(1달간 3만명 서명)
2012년 7월 1일	극우성향의 가타야마 사즈키 자민당 참의원을 위해 「7.1 가타야마 사즈키 의원을 응원하는 집회」개최	야후 재팬 블로그
2013년 3월	3/3: 도쿄 아사쿠사에서 「북방영토·독도·센카쿠 수호집회」개최 3/14: 조총련 본부 및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독도 탈환을 위한 집회 개최 3/20: 도쿄 요요기공원 NHK 방송의 허위보도 항의 시위	재특회 세토 히로유키 블로그 (각 50-100명 참가)
2013년 6월 1일	도쿄 메구로구 구민회관에서 「행동하는 보수운동 도쿄 총결의대회」개최	재특회(약 100명 참가)

소하는 등 넷우익의 영향력이 실제로 발휘되기도 했다.

위와 같이 단발성으로 진행된 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오프라인에서 넷우익의 정치세력화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체는 사쿠라이 마코토를 중심으로 1백여명의 넷우익이 모여 2007년 1월 20일 출범한 「재특회」다.³⁷⁾ 재특회는 재일 한국 및 중국인이 다른 일본 거주 외국인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역사왜곡과 날조한 자료를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20일 현재 1만3천3백81명의 회원이 가입해 재특회는 일본 최대 규모의

37) 재특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zaitokukai.info> (검색일: 2013.06.20).

보수우익 단체로 성장했다. 이들은 재일 조선·한국인 및 중국인들이 좌파와 노조의 비호 뒤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자신들은 일본인을 대표해 ‘계급투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차적으로는 조총련·한국계 일본 영주자에 대한 지원금과 연금을 폐지하고, 조총련계 학교 수업료 무상화³⁸⁾ 및 외국 국적자 생활보호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립 직후부터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고 한국과 거래를 하는 일본 기업도 비난하는 등 점차 한일관계 전반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일본내 대표적인 한인타운이자 한류의 중심지인 도쿄 신오쿠보와 오사카 츄루하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 과격한 반대 시위를 실시하고 있어서 일본내 한국 문화전파를 가로막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는 재특회처럼 조직화되지 않는 않았어도 한국 정부나 재일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내 한국 관련 공공기관³⁹⁾ 앞이나 한인 밀집지역에서 활발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독도가 이슈화되면 험한 시위를,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 험중 시위를 조직하여 한일·중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넷우익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활동 범위와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넷우익이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당을 형성할 역량도 없기 때문에 향후 네오나치정당(NPD)처럼 정치세력화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安田 2013)도 있으나, 넷우익이 주장하던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축소안이 실제로 2012년 생활보호수급자 조건 개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週刊朝日 13/02/01)도 존재하는 등 보수 정당의 집권과 더불어 넷우익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넷우익의 주장 중 △일본의 핵무장과

38) 재특회는 2009년 12월,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에서 시위를 벌이고, 2010년에는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 사무실에 난입하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일본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39) 일본 위안부피해자들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를 반대하는 의미로, 도쿄소재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를 갖고 야스쿠니 참배 찬성, 고노담화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징병제 도입 △한국과의 국교 단절 △중국과의 전쟁 등의 극단적인 내용은 주장의 진실성 여부도 불투명하며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지만, 네티우익이 한일 및 중일관계를 경색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교란자로 성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내 네티우익의 대항세력

일본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기에는 좌파 지식인들의 인터넷 이용이 더욱 두드러졌지만⁴⁰⁾ 이들은 인터넷 공간이 지나치게 대중화 되자 진지한 토론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인터넷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한편, 인터넷 공간이 개방되고 컴퓨터 보급이 거의 완료된 이후 등장한 네티우익은 당시 기존 인터넷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좌파성향의 게시물을 비판하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블로그의 글을 2ch 등의 익명 게시판에 가져와 오류를 일방적으로 공격했는데, 때마침 불어온 신자유주의적 조류와 구(舊)공산권 국가들의 연이은 몰락으로 우파 성향 담론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되면서 일본 인터넷 담론의 주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近藤 2007).

그러나, 최근 네티우익의 급격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운동 및 좌파⁴¹⁾ 세력들이 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등장하면서, 네티우익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세력으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온라인상의 활동으로는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반(反)네티우익 사이트를 개설해⁴²⁾ 네티우익들의 행태를 기록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주장을 분석하여 증거 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더

40) 콘도 외(近藤 2007)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강한 개인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좌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고 공유정신을 중요시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41) 일본내에서 극좌파로 분류되는 혁명적노동자협회(革勞協)는 협회지에서 재특회를 파시스트라 비난하고 “조선 인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네티우익 및 재특회와 대립하고 있다.

42) 네티우익 관찰 사이트 <http://blog.goo.ne.jp/ngc2497> (검색일: 2013.06.03).

나아가 네티우익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네티우익이 일본내 한국인 밀집지역에서 개최하는 혐한 및 반한 시위에 대항하는 ‘반(反)혐한’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반혐한 운동은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 등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혐한 및 반한시 위대에게 야유를 보내고 한글로 “일본과 한국은 친구” 등의 메시지를 적은 플래카드를 제작해 언론에 노출시키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익 시위대를 압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6월 13일 야마가타현은 재특회의 지방청사 사무실 이용을 금지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익단체에 대해 내린 첫 번째 제재로 인종차별 단체를 후원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인종차별 철폐조약에 따른 것이다.⁴³⁾ 이상의 예는, 일본 내 네티우익의 담론이 전파되면서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위협성을 느낀 사람들도 증가해 일본 내에서도 네티우익을 자체적으로 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V. 네티우익의 활동과 한일관계: 근대와 탈근대⁴⁴⁾의 관점에서

1. 역사 및 영토문제

네티우익의 활동 중 한국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사안은 역사 및 영토문제와 관련되는 행동이다. 네티우익은 한국·중국·북한 등을 ‘특정아시아’라

43) 재특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zaitokukai.info/modules/news/article.php?storyid=594> (검색일: 2013.06.25).

44) 근대와 탈근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존재하나, 이 글에서는 정치·군사 등 경성정치(hard politics)를 중심으로 한 문제를 전통적인 국가적 차원의 외교로 대응하는 것을 ‘근대’로, 사회·문화 등 연성정치(soft politics)의 문제를 민간차원에서의 공통의 공론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탈근대’로 구분해 사용하였다. 류석진·조희정(2008) 참조.

지칭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⁴⁵⁾, 그 이유는 한국 및 중국 정부가 국민에게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반일사상을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한국과 중국에 떠넘기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 넷우익은 한국의 반일교육과 함께 독도 실효지배와 대마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된 활동은 2ch이나 야후 재팬 뉴스 게시판 등에 반한적인 내용의 답글을 작성하는 것이나, 위안부·독도·동해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 백악관 청원란을 비롯한 해외 공공기관 및 언론의 웹사이트로까지 활동을 넓혀가고 있어서 넷우익에 대한 한국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특히,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과 한국의 삼일절·광복절 등에는 한국과의 국교 단절을 강하게 주장하며⁴⁶⁾ 태극기를 본뜬 깃발을 깃뚫고 그 모습을 동영상에 게시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넷우익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외면하거나, 자료를 조작하면서까지 부정하기도 하지만,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이 아무리 한국에 사과를 해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이유로 반한파로 돌아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고노 담화와 위안부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여성기금,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자민당 출신의 총리 4명이 총리명의로 사죄편지를 작성한 것 등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인 화해의 재스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일본 넷우익은 이를 반한감정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넷우익이 급증한 계기 중 하나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당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것인 만큼(Mie 2013), 상당수의 넷우익들은 일본 역시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피해자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45) 반대로 친일 성향의 대만에 대해 호의를 보이고 있다.

46) 「한일 단교 공투위원회」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단체 참가자들 중 대부분이 재특회 회원으로 광의의 넷우익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영토문제와 관련 네티우익의 의견 개선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일본 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도 애국단체 VANK가 한일간 대립중인 문제와 관련, 세계의 공공 및 민간 기관에 항의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역사 및 영토관련 인터넷상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네티우익의 주장을 반격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특히 영토문제라는 가장 근대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개입 및 현상유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일본조차도 국제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청원과 항의라는 탈근대적 방식을 통한 현상변경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데 더욱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일간 역사 및 영토문제에 있어서 네티우익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에 대해 한국에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네티우익 및 그들의 주장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네티우익의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한 주장은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네티우익을 등에 업은 일본 보수정권과 한국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07년 총리직 사임 이후 두드러지는 활동이 없었으나, 2012년 1월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상륙에 대해 페이스북에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위”, “폭거”라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약 2만 5천명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등 네티우익을 지지기반으로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모을 수 있었다(週刊朝日 13/02/01). 이전까지 아베의 자민당 총재 및 총리 재임 가능성은 낮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사과 발언,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센카쿠 영토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폭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일본의 민족감정을 자극해 우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만큼(朝日新聞 12/12/29) 향후에도 아베 총리 및 자민당이 네티우익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네티우익이 한일간의 역사 및 영토문제에 있어서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영향

넷우익의 화제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또 다른 분야는 한류 콘텐츠 및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을 들 수 있다. 넷우익은 일본내 한국 문화 및 한류 콘텐츠 유통증가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⁴⁷⁾ 이를 지체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역사 및 영토문제와 달리 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일지라도 일본내 유통 축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으며, 나아가 한국의 문화콘텐츠 정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넷우익의 한류 공격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2ch 등 일본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국 콘텐츠의 내용 비하 △표절 지적 △한국 연예인 비방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 예로, 2006년 9월 한국영화 「괴물」의 개봉을 둘러싸고 일본 인터넷에서는 자국 애니메이션 「기동경찰 패트레이버3」에 등장하는 괴생물체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일본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고, 특수효과 전문가가 차이점이 더 많다고 결론내려 논쟁은 일단락되었으나, 넷우익들은 “한국은 표절국가”라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보이게 편집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반복해서 게재했다. 이외에도, 개별 한류 콘텐츠에 대한 비난에서 나아가 넷우익은 한류를 한국 정부 산하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날조라는 음모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유튜브의 k-pop관련 동영상 조회수를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47)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하다. 야기 야스히로 재특회 부회장은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시 한국의 불공정한 경기 때문에 일본 인터넷상에서 혐한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9년 당시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에서 ‘(피겨 스케이트)경기 직전 연습 때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발언해 일본 선수들이 방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것 때문에 스포츠 팬들 사이에 다시한번 반한 논쟁이 부상했다.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⁴⁸⁾ 또한 일본 내 재일기업들이 일본 미디어를 매수해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비난의 강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⁴⁹⁾

나아가 넷우익은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한국 프로그램의 광고 스폰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반한시위를 여는 등 온라인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논리를 오프라인으로 점차 확장시켰다. 2010년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가 한국 드라마 최초로 황금시간대에 일본 지상파 방송국인 TBS에서 방송되자 넷우익은 해당 방송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2011년에는 후지TV 반한시위라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일본내 한류의 중심지라 불리는 도쿄 신오쿠보에서 주기적으로 반한시위를 개최해 한국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지 상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신오쿠보 상점가는 2012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38%축소됐는데⁵⁰⁾ 상당수의 상인들이 그 원인을 일본 우익단체의 험한 시위에서 찾고 있다.⁵¹⁾

한국에서는 일본내 험한류에 대해,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부상에 거부감을 느끼는 일부 넷우익의 왜곡된 시각이 원인이며 이들이 스스로 비뚤어진 문화애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한류가 한류를 통해 지나친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해온 것에 대한 역작용일 수도 있다는 반성의 시각에서 반한류에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이윤경 외 2009)가 이루어지는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 정책에도 점차 변

48) <http://d.hatena.ne.jp/hillser/20110716> (검색일: 2013.06.21).

49) 넷우익의 주장 근거는 일본최대 광고기획사 텐츠의 사장이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생이라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하다.

50) 2012년 한류발전협의회 조사.

51) 반한시위와 한류 경제의 상관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험한 시위 외에도 △현지 상점의 서비스 부실 △상품 품질문제 △도쿄 스카이트리 등 도쿄 내 대안 관광지 조성 등도 신오쿠보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가 생기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지원으로 해외의 한류 관련 산업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일본내 반한감정 등 부정적 분위기도 모니터링해 일본으로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문화산업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문화부의 문화한류진흥사업은 반한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콘텐츠 교류와 상호간 이해증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문화콘텐츠의 유통이라는 탈근대적 문제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네티우익의 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네티우익은 한국의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문화콘텐츠 정책 분야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대(對)일본 소프트파워 및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네티우익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3. 정보통신기술(ICT) 및 사이버 테러리즘

네티우익의 활동은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는 사이버 테러리즘 등 관련 정책에도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논하기에 앞서 기술변수가 전반적인 인터넷 민족주의, 나아가 일본 네티우익 활동 확장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의 밀도에 따라 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며, 인터넷은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인터넷상에서는 개인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타인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소수의견도 전체 구조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기 용이한 다중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폭발하려면 특정 사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단기간

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인터넷은 기술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2차대전 이후 민주주의가 급속히 도입되면서 민족 및 애국주의가 금기시 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신할 수 없는 시대가 장기간 계속되었다. 민족주의와 관련해 금기시됐던 담론들이 인터넷이 보급된 1995년 이후 한꺼번에 분출됐고 특히 2000년대 이후 블로그와 SNS의 등장으로 인터넷이 우익적 방향으로 극단화하는데 박차를 가했다(福田 2011).

또한,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수정이 용이하여 정보의 왜곡이 쉽고, 부정확하거나 일방적인 정보도 빠른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네티우는 인터넷 게시판에 일본 패망 이후 제일 조선인이 ‘조선진주군’이라는 부대를 결성해 일본인을 공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일본 무장 경찰관이 재일본조선인연맹 본부를 수색하는 사진을 ‘무장한 제일 조선인 집단’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며 있다.

나아가 인터넷 환경이 정비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번역기술이 발달하면서 타국의 웹콘텐츠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일본 게시판에 우익적인 발언이 주변국들에게 바로 전달되어 아시아 지역내 상호우경화라는 악순환으로 빠지는 측면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타국 언어로 작성된 한국 관련 글들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개소문닷컴⁵²⁾을 들 수 있다(김기덕 2011). 동 게시판에는 파트타임 번역가 및 일반 이용자들이 비한국어권 자유게시판을 출입하면서 수집한 한국 관련 발언을 번역한 것이 게시되고 있는데, 자료출처의 30% 정도가 2ch이고 특히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되고 있다.

52) <http://www.gesomoon.com> 사이트를 개설한 안진홍은 한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귀속력이 강하고 남들이 바라보는 나에 큰 관심을 가져,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외국에서 바라보는 나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동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2005년경 서비스를 시작한 개소문닷컴은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을 계기로 사이트 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한국 위키피디아 참조 (검색일 2013.07.04).

한중일 3국간에는 군사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민족주의적 감정대립으로 인한 사이버 테러리즘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인들 간의 사이버 공격의 상당수가 이 같은 인터넷 민족주의에서 기인한다(츠치야 2012).「NEWS 포스트세븐」의 나카가와 편집인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누구나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능력이 낮은 자들끼리 동조하여 ‘바보논단’을 구성한 것이 네티우익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하였다. 각국별로 ICT의 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민족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체적인 이용자 집단의 인터넷 리터러시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의 인터넷 민족주의 및 불안형 내셔널리즘에 대한 교훈

한국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인터넷 이용자⁵³⁾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사이트⁵⁴⁾들에서도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일본 관련 특정 주제⁵⁵⁾가 부상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시글이 집중적으로 투고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관련한 한국의 인터넷 민족주의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사이트별, 혹은 좌파와 우파의 특징을 나누기는 쉽지 않다.

한편, 애국을 강조하며 좌파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고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서슴없이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가 한일 인터넷 공간의 유사한 흐름을 알 수 있다. 일베와 네티우익은 좌파를 공격하고 외국인 혐오하는 등 증오의 정서를 공유하면서 자신들만의 인터넷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용자가 기존 우익단체들

53)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정치사회 갤러리 등

54) 오늘의 유머, MLB파크, 다음 뉴스 네티즌 의견란 등

55)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일본 식민지배 관련 주제 뿐만 아니라 축구, 피겨스케이팅 등 양국의 경쟁을 전제로 한 주제들을 포함한다. 한국 인터넷상의 반일감정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서 국내정치 문제에서 가장 크게 대립하는 ‘오늘의 유머’와 ‘일베’가 반일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현상도 자주 나타난다.

〈표 2〉 일베리스트와 네티우익 비교⁵⁶⁾

일베	네티우익
애국 강조, 반 좌파, 반 외국인 정서	
언론에 대한 음모론, 정보의 왜곡 주장	
10~30대 이용자 중심	
스스로를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여김	스스로를 사회적 피해자라 여김
조직내 리더를 인정하지 않음	재특회 등 리더를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 생김
아직 집단적인 오프라인 활동은 없음	거리 시위 등 대외활동 활발
여성에 대한 강한 혐오 나타냄	여성 및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 별로 없음

과 달리 10~30대의 젊은 층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극우 이념과 혐오·증오의 정서, 왜곡된 역사를 학습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한국 중고교생들이 “일베를 통해 역사와 정치를 알게 되었다”며 기존 언론의 보도는 ‘중북좌파’가 왜곡한 것이고 일베의 자료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ch의 특정 게시판을 이용하는 네티우익, 나아가 재특회 회원이 된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진실에 눈을 떴다”고 주장하는 등 일베 이용자와 네티우익들에게는 인터넷 공간과 그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성채가 왜곡된 정치적 신념과 이념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베의 경우 오프라인 조직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등 구체적인 행태에서 네티우익과 다른 점도 존재한다. 네티우익이나 재특회 구성원이 스스로를 경제적·사회적 약자로 여기고 있으며, 특혜를 받는 한국·중국인들에 대해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베 이용자는 ‘한국인·남성·경상도 출신’인 본인이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베에서 본인이 명문대학 출신이거나 전문직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문화가 생겨난 것도 이러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에는 과거와 달리 이와 같은 조건

56) 경향신문 (13/06/04) 참조.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입지가 위태로워져 가는데서 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에서는 넷우익과 일맥상통한다. 한국과 일본에 인터넷이 도입됐던 시기에는 권위주의적 국가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면, 일베와 넷우익은 진보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安田 2012).

한국에서는 2013년 5월 민주당이 일베의 운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하는 등 일베의 극단적 성향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유해매체 지정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했다. 이러한 견해는 일베라는 집단이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 사라질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넷우익과 마찬가지로 일베의 주장은 일정부분 변주되고 극단화되어 표출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혹은 오프라인에서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강제적으로 이들을 해산시키는 등 근대적이고 강제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다른 사이트로 이들의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넷우익이나 일베 등의 왜곡된 인터넷 세력이 인류가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소요될지라도 인터넷 공간이 자생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내·외부적 자극 요인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I. 나오며

동아시아에서의 민족주의적 대립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주로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지난 10여년간 인터넷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인터넷 민족주의는 경제·문화·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담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3국의 내부적 문제를 은폐하는 장치

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도와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일본을 당구공처럼 단단한 하나의 의견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넷우익은 전체 일본인 중 소수에 불과하며, 일본 내에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한국의 대 일본 외교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내에 존재하는 넷우익의 위협성을 과장해서 바라보기보다는, 넷우익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국관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생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국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인 대립 구도나 사회적 다양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넷우익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위험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중국이나 한국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일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바, 이 인구가 최근 활동을 다양화해가는 넷우익과 결합했을 때의 위협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집단의 행동을 정당히 평가하고, 한국 인터넷 공간에서부터 왜곡된 정보로 일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줄여나가 넷우익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한일 인터넷 민족주의 논의에는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삼각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지난 2012년 8~10월 사이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갈등을 겪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한중일 인터넷 상에서는 기묘한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産経新聞 12/09/02, 3). 센카쿠제도를 두고 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터넷에서는 독도에 대해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견해가 적지 않게 나타났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센카쿠는 일본의 영토’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영토문제로 일본에 대해 적

대적인 여론이 고조됐던 한국과 중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한중간에도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어도 및 백두산 귀속문제 등의 영토문제가 잠재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한 감정을 가진 일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본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을 더욱 적대시 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인터넷 민족주의상 특수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한중관계의 뒤엎힘으로 인해 독도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본 인터넷 민족주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변수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투 고 일 : 2013년07월15일]

[심사완료일 : 2013년07월30일]

[게재확정일 : 2013년07월30일]

참고문헌

- 곽희양 (Kwak, Hui-yang). 2013. “일베 현상에서 한국사회를 본다.” (Ilbe Hyeonsang-eseo Hanguksahoe-reul Bonda) 『경향신문』(*Gyeonghyang Sinmun*) (6월 4일).
- 김기덕 (Kim, Gi-deok). 2011. “미디어 콘텐츠 속 한·중·일 젊은 세대의 역사문화갈등과 대안모색.” (Media Contents Sok Han · Jung · Il Jeolmeun Sedae-ui Yeoksamun hwagaldeung-gwa Daeanmosaek) 『통일인문학논총』(*Tongil Inmunak Nonchong*) 52: 143-179.
- 김윤중 (Kim, Yun-jong). 2006. “한중일 인터넷 삼국지-사이버 민족주의 극성.” (Hanjungil Internet Samgukji-Cyber Minjokjuui Geukseong) 『동아일보』(*Donga Ilbo*) (9월 13일).
- 김태훈 (Kim, Tae-hun). 2012. “일본 네티우의 반한 · 반중 ‘노골적’.” (Ilbon Net Uik Banan · Banjung ‘Nogoljeok’) 『주간경향』(*Jugan Gyeonghyang*) (5월 10일).
- 김효진 (Kim, Hyo-jin). 2011. “기호로서의 혐한과 혐중: 일본 네티우의과 내셔널리즘.” (*Gihorseoui Hyeomhan-gwa Hyeomjung: Ilbon Net Uik-gwa Nationalism*) 『일본학연구』(*Ilbonak Yeongu*) 33: 31-56.
- 류석진 (Ryu, Seok-jin) · 조희정 (Cho, Hui-jeong). 2008.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에 대한 연구.” (Online Gonggan-ui Minjokjuuijeok Galdeung-e Daehan Yeongu)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Cybercommunication Hakbo*) 25(4): 83-119.
- 박기철 (Park, Gi-cheol). 2011.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사례와 영향.” (Jungguk-ui ‘Internet Minjokjuui’-wa Daeoe Jeongchaek-e Gwanan Yeongu: Sarye-wa Yeonghyang) 『중국학연구』(*Junggukak Yeongu*) 55: 93-119.
- 박훈 (Park, Hun) · 남상호 (Nam, Sang-ho) · 최영호 (Choi, Yeong-ho) · 김태기 (Kim, Tae-gi). 2008.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Ilbon Uik-ui Eoje-wa Oneul*). 서울 (Seoul): 동북아역사재단 (Dongbuga Yeoksajaedan).
- 서이중 (Seo, I-jong) · 탕레이 (Tang, Ley). 2013.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언.” (Jungguk-gwa Hanguk-ui Cyber Minjokjuui Bigyo Yeongu) 『세계정치』

(*Segye Jeongchi*) 18: 235-262.

- 우석훈 (Wu, Seok-hun) · 박권일 (Park, Kwon-il). 2007. 『88만원 세대』(*88manwon Sedae*). 서울 (Seoul): 레디앙 (Redian).
- 유민호 (Yu, Min-ho). 2013. “거리로 나온 日 네티우익들 어디로 가나.” (*Geori-ro Naon Il Net Uikdeul Eodiro Gana*) 『주간조선』(*Jugan Joseon*) (1월 21일).
- 이로사 (Lee, Ro-sa). 2010. “3·1절 ‘한-일 사이버전쟁’…양국 네티즌 쌍방 ‘접속 공격.’” (3·1jeol ‘Han-Il Cyber Jeonjaeng’…Yangguk Netizen Ssangbang ‘Jeopsok Gonggyeok’) 『경향신문』(*Gyeonghyang Sinmun*) (3월 2일).
- 이윤경 (Lee, Yun-gyeong)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Tourism Institute). 2009. 『반한류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Banhallyu Hyeonhwang Bunseok Mit Daeungbangan Yeongu*). 서울 (Seoul):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일본 위키피디아. 2011. “2011년 후지TV 소동.”
<http://ja.wikipedia.org/wiki/2011%E5%B9%B4%E3%81%AE%E3%83%95%E3%82%B8%E3%83%86%E3%83%AC%E3%83%93%E9%A8%92%E5%8B%95%E9.AB.98.E5.B2.A1.E8.92.BC.E7.94.AB.E3.81.AE.E3.83.84.E3.82.A4.E3.83.BC.E3.83.88>(검색일: 2013.06.09).
- 일본 위키피디아. 2013. “단카이 세대(団塊の世代).” <http://ja.wikipedia.org/wiki/%E5%9B%A3%E5%A1%8A%E3%81%AE%E4%B8%96%E4%BB%A3>(검색일: 2013.06.12)
- 일본 위키피디아. 2010. “프리터(フリター).” <http://ja.wikipedia.org/wiki/%E3%83%95%E3%83%AA%E3%83%BC%E3%82%BF%E3%83%BC>(검색일: 2013.06.12)
- 조규철 (Cho, Kyu-cheol) · 김춘식 (Kim, Chun-sik) · 최석완 (Choi, Seok-wan) · 류승렬 (Ryu, Seung-ryeol). 2010.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Geunhyeondae Hanil Gwangye-ui Je Munje*). 서울 (Seoul): 동북아역사재단 (Dongbuga Yeoksajaedan).
- 정민우 (Jeong, Min-woo). 2010. “초/국적 시대 민족주의 정치학과 대중문화의 역학.” (Cho/Gukjeok Sidae Minjokjuui Jeongchihak-gwa Daejungmunhwa-ui Yeokhak) 『언론과 사회』(*Eollon-gwa Sahoe*) 18(3): 35-70.

- 홍주현 (Hong, Ju-hyeon) · 이창현 (Lee, Chang-hyeon). 2011. “중국의 인터넷 포털 게시
판 댓글의 파동 분석.” (Jungguk-ui Internet Portal Gesipan Dakkeul-ui Padong
Bunseok)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Cybercommunication Hakbo) 28(2): 99-
147.
- 岩淵功一 (Iwabuchi, Koichi). 2004. 『越える文化,交錯する境界: トランス・アジアを翔るメ
ディア文化』(Koeru Bunka, Kosakusuru Kyokai: Trans-Asia o Kakeru Media
Bunka). 東京 (Tokyo): 山川出版社 (Yamakawashuppansha).
- 近藤瑠漫 (Kondo, Ruman) · 谷崎晃 (Tanizaki). 2007. 『ネット右翼とサブカル民主主義: マ
イデモクラシー症候群』(Net Uyoku to Subculture Minshushugi) 東京 (Tokyo):
三一書房 (Sanichishobo).
- 鈴木謙介 (Suzuki, Kensuke). 2008. 『サブカル・ニッポンの新自由主義: 既得権批判が若者
を追い込む』(Subculture Nippon no Shinjiyusyugi). 東京 (Tokyo): ちくま新書
(Chikumashinsyo).
- 高原基彰 (Takahara, Motoaki). 2006. 『不安型ナショナリズムの時代: 日韓中のネット世代
が會みあう本?の理由』(Fuangata Nashonarizumu no Jidai). 東京 (Tokyo): 洋泉社
(Yosensha).
- 辻大介 (Tsuiji, Daisuke). 2008. 『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右傾化」現象に関する 實証研究』
(Internet ni okeru Ukeika Kenjou ni Kannsuru Jishokenkyu).
<http://d-tsuji.com/paper/r04/>(검색일: 2013.6.11).
- _____. 2009. “研究室からのメディア・レポート 調査データから探る「ネット右翼」の實態.”
(Kenkyusitsu kara no Media Report) 『ジャーナリズム』(Journalism) 226: 62-69.
- 土屋大洋 (Tsuchiya, Motohiro). 2012. 『サイバー・テロ日米vs.中國』(Cyber Terror Nichibei
bāsasu Chūgoku). 東京 (Tokyo): 文藝春秋 (Bunshun Shinsho).
- 福田充 (Fukuda, Mitsuru). 2011. “アメリカの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2.0戦略~テロ對
策とインテリジェンスとの關連性.” (America no Public Diplomacy 2.0 Senryaku)
『國際情勢』(Kokusajiose) 81: 381-396.
- 宮崎學 (Miyazaki, Manabu). 2007. 『右翼の言い分』(Uyoku no Iibun). 東京 (Tokyo): アス

コム出版 (Ascom inc).

安田浩一 (Yasuda, Koichi). 2012. 『ネットと愛國: 在特會の「闇」を追いかけて』(*Netto to Aikoku: Zaitokukai no Yami o Oikakete*). 東京 (Tokyo): 講談社 (Kodansha).

安田浩一 (Yasuda, Koichi) · 木村元彦 (Kimura) · 園子温 (Sono). 2013. 『ナショナリズムの誘惑』(*Nationalism no Yuwaku*). 東京 (Tokyo): ころから (Korokara).

山本一郎 (Yamamoto, Ichiro) · 安田浩一 (Yasuda) · 中川淳一郎 (Nakagawa). 2013. 『ネット右翼の矛盾: 憂國が招く「亡國」』(*Net Uyoku no Mujun*). 東京 (Tokyo): 宝島社 (Takarajimasha).

朝日新聞 (Asahi Shinbun). 2011年9月20日.

産経新聞 (Sankei Shinbun). 2005年5月8日.

_____. 2012年9月3日.

週刊朝日 (Shukan Asahi). 2013年2月1日.

中日新聞 (Chunichi Shinbun). 2012年12月27日.

AERA. 2007年9月17日.

SAPIO. 2012. “これで「ニッポン」が救えるのか? ネットウヨ(ネット右翼)亡國論: この國の本
当の「保守」とは何か.” (Korede 「Nipon」ga Sukuierunoka? Netouyo(Neto Uyoku)
Boukokuron: Kono Kunino Hontouno 「Hoshu」toha Nanika) 24(12): 6-27.

Calhoun, C. 1997. *National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_____. 2007. *Nations matter: Culture, History, and the Cosmopolitan Dream*. London &
New York: Routledge.

Castells, M. 201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Wiley-Blackwell.

Chi, E. 2012. “The Chinese government’s responses to use of the internet.” *Asian
Perspective* 36(3): 387-409.

Conversi, D. 2012. “Irresponsible Radicalisation: Diasporas, Globalisation and Long-
distance Nationalism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8(9): 1357-1379.

Eriksen, T. H. 2006. Nations in Cyberspace. 2006 Ernest Gellner Lecture, Delivered to the

ASEN Confere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Mie, A. 2013. "NET UYOKU: Xenophobia finds fertile soil in web anonymity." *The Japan Times*. January 8.

Wu, X. 2007. *Chinese Cyber Nationalism: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New York: Lexington Books.

[인터넷 자료 활용]

2ch <http://www.2ch.net>(검색일: 2013.05.20).

개소문닷컴 <http://www.gesomoon.com>(검색일: 2013.05.20).

넷우익 관찰 및 분석 사이트 <http://blog.goo.ne.jp/ngc2497>(검색일: 2013.06.03).

_____. <http://d.hatena.ne.jp/hillser/20110716>(검색일: 2013.6.21).

넷우익 블로그 <http://tsunami311.seesaa.net>(검색일: 2013.05.23).

니코니코 동화 <http://www.nicovideo.jp>(검색일: 2013.05.20).

디시인사이드 <http://www.dcinside.com>(검색일: 2013.05.20).

미국 청와대 청원란 <http://petitions.whitehouse.gov>(검색일: 2013.05.30).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http://diplomat.prkorea.com/main.jsp>(검색일: 2013.05.20).

세토 히로유키 블로그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http://blog.livedoor.jp/the_radical_right(검
색일: 2013.06.09).

아베 신조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abeshinz>(검색일: 2013.05.23).

야후 뉴스 코멘트 <http://headlines.yahoo.co.jp/cm/list>(검색일: 2013.05.20).

여성 전용 정보 블로그 youpouch <http://youpouch.com>(검색일: 2013.06.03).

일본문화채널 사쿠라 <http://www.ch-sakura.jp>(검색일: 2013.05.20).

재일특권을 허용 하지 않는 시민모임 <http://www.zaitokukai.info>(검색일: 2013.06.20).

주권회복을 위한 모임(主權回復を目指す會) <http://shukenkaifuku.com>(검색일: 2013.05.23).

ABSTRACT

Japan's Cyber Nationalism and its impact on Korea

RHEE Wonkyung

Doctoral Candidate
Wased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ism in Japanese cyberspace starting in the late 1990s and especially focusing on the emergence of the Net Right and its impact on Korea. The Net Right signifies ultra-nationalistic texts against ethnic Koreans and Chinese on the Japanese internet bulletin board. They emerged in the early 21st century and had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right-wing activism in Japan based on its different theoretical backgrounds. During the 20th century, nationalism in Japan developed as a basis of constructing the modern Japanese state against the west, and national pride functioned as a tool for economic growth. Japanese nationalism in these days, however, is amplified with massive information exchange and the sharp drop in the cost of producing, storing and distributing digital content. The dominant cultural purpose of the den of the Net Right is amusement and not aberration. But the spreading of mutually understood negative ideations is not desirable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istic fervor and aggressive tones to a broader national audience. The Net Right starts to influence Korea-Japan relations including territorial disputes and their soft power policies. In case of Dokdo, the Net Right accumulated their own nationalistic discourses and mobilized large groups of people by using websites and social media. In spite of their efforts, the influence for real politics is still

limited. On the other hand, cyber nationalism is vital to the popular cultural sphere in the rapid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processes of cultural production, consumption, and practices. Government initiatives to promote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increased vigilance of other cultures or even stimulates cyber nationalism.

Keywords Cyber Nationalism, Net Right, Cyber Terror, Korean Wave, Korea-Japan Relations